

<빠른 정답>

번호	정답
1	㉓
2	㉑
3	㉕
4	㉔

<출제 단위 및 유형>

번호	출제 단위	유형	난이도
1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사례	하
2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사례	상
3	문화의 이해	피즐	중
4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도표	중

<해설>

1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빠른 정답] ㉓

[자료 분석]

㉑, ㉔은 사회·문화 현상이고, ㉒, ㉕은 자연 현상이다.

[정답 풀이]

㉓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을 따른다.

[오답 풀이]

㉑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자연 현상이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불가치적이다.

㉒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 모두 보편성이 나타난다. ㉒, ㉕은 모두 자연 현상으로 '달리'를 통해 구분할 수 없다.

㉔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㉑, ㉔은 모두 사회·문화 현상으로 '달리'를 통해 구분할 수 없다.

㉕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 모두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2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빠른 정답] ㉑ (ㄱ, ㄴ)

[정답 풀이]

ㄱ. 갑, 을의 연구는 모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양적 연구이다. 양적 연구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한다.

ㄴ. 갑의 연구는 ㉑(다문화 교육)이 고등학생의 ㉒(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므로 ㉑은 독립 변인이고, ㉒은 종속 변인이다.

[오답 풀이]

ㄷ. ㉒에 의해 갑의 가설은 기각된다. 그러나 가설이 수용되지 않고 기각되었다고 해도 가설은 검증된다.

ㄹ. D 집단은 다문화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이고, 사전 검사 시점에서의 A 집단 또한 다문화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이다. 독립 변인이 처치되지 않은 두 집단의 비교 결과는 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문화의 이해

[빠른 정답] ㉕

[자료 분석]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은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이다. 따라서 A와 B 중 하나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문화 상대주의이다. 따라서 A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둘을 종합하면 A는 문화 상대주의, B는 문화 상대주의, C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정답 풀이]

㉕ C(자문화 중심주의)는 A(문화 상대주의), B(문화 상대주의)와 달리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오답 풀이]

- ① A(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다양성 확보에 유리하지 않다.
- ② B(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
- ③ C(자문화 중심주의)는 타문화와의 공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④ B(문화 상대주의)는 A(문화 상대주의), C(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개별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4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빠른 정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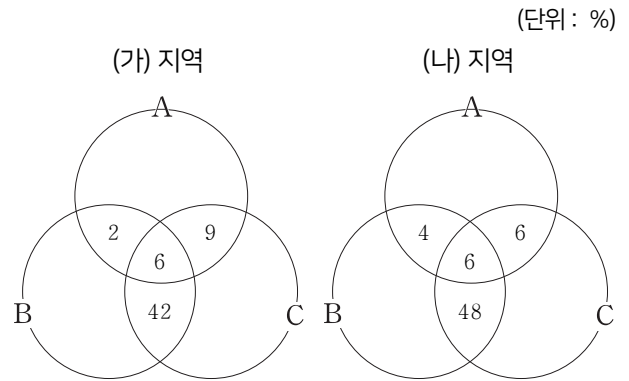
[자료 분석]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 서비스가 유일하다. 따라서 B는 사회 서비스이다. 사회 보험은 공공 부조에 비해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C는 사회 보험이고, A는 공공 부조이다.

(가) 지역과 (나) 지역의 A, B, C 제도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을 $k\%$ 라 놓는다면, (가) 지역에서 A, B, C 중복 수혜 가구를 제외한 A, B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8 - k)\%$, A, B, C 중복 수혜 가구를 제외한 A,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15 - k)\%$, A, B, C 중복 수혜 가구를 제외한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48 - k)\%$ 이다.

또한 (나) 지역에서 A, B, C 중복 수혜 가구를 제외한 A, B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10 - k)\%$, A, B, C 중복 수혜 가구를 제외한 A,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12 - k)\%$, A, B, C 중복 수혜 가구를 제외한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54 - k)\%$ 이다.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을 제외한 A, B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나) 지역이 (가) 지역의 2배이므로 $2(8 - k) = 10 - k$, $16 - 2k = 10 - k$, $k = 6$ 이다. 다음의 정보를 반영해 (가), (나) 각 지역 각 제도의 수혜자 비율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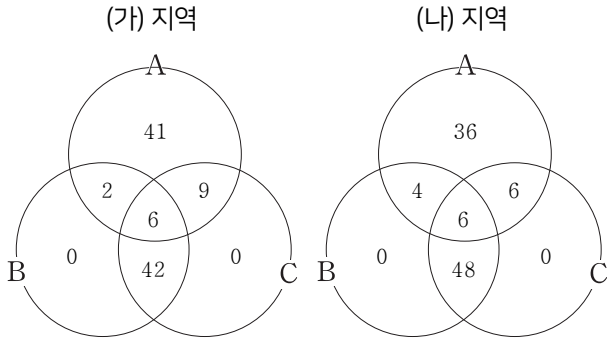
[정답 풀이]

- ④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A와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C이다. 공공 부조나 사회 보험만의 수혜자 비율이 0인 경우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가 각 지역에서 가지는 수혜 가구의 비율이 최소가 된다. 이 경우,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수혜 가구 비율의 최솟값은 (가) 지역의 경우 $59(2+6+9+42)\%$ 이고 (나) 지역의 경우 $64(4+6+6+48)\%$ 이다. 따라서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가) 지역 수혜 가구 비율의 최솟값이 (나) 지역 수혜 가구 비율의 최솟값보다 작다.

[오답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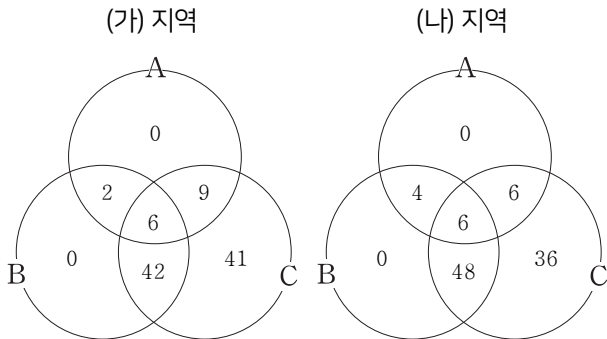
- ① 공공 부조는 선별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 ② A, B, C 중복 수혜 가구를 제외한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가) 지역이 42%, (나) 지역이 48%로 같지 않다.
- ③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두 가지 제도만의 혜택을 받는 가구의 비율은 (가) 지역이 $(2 + 9 + 42)\% = 53\%$, (나) 지역이 $(4 + 6 + 48)\% = 58\%$ 로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높다.
- ⑤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공공 부조인 A이고, 의무 가입이 원칙인 제도는 사회 보험인 C이다. 특정 제도가 각 지역에서 가지는 수혜 가구의 비율은 해당 지역에서 그 제도만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가장 많을 때 최대가 된다. 각 지역에서 A 제도만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가장 많은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A 제도 수혜 가구 비율의 최댓값은 (가) 지역이 $58(= 41 + 2 + 6 + 9)\%$, (나) 지역이 $52(= 36 + 4 + 6 + 6)\%$ 이다.
또한 각 지역에서 C 제도만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가장 많은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C 제도 수혜 가구 비율의 최댓값은 (가) 지역이 $98(= 9 + 6 + 42 + 41)\%$, (나) 지역이 $96(= 6 + 6 + 48 + 36)\%$ 이다.
따라서 A, C 제도 모두 (가) 지역 수혜 가구 비율의 최댓값이 (나) 지역 수혜 가구 비율의 최댓값보다 크다.

저자 소개

김태주(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한정윤(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명성, 김가현

Closer 예열문항은, ‘Closer’라는 이름처럼, 수능장에 들어가신 여러분들이 1년간의 공부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4교시의 마지막 과목을 무실점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 수능이 종료되고 나면 2024학년도 수능대비 컨텐츠 개발을 위한 리크루팅도 진행할 예정이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리크루팅에 대한 질문은 <https://open.kakao.com/o/sPO8TINe>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